

완공 5년 장흥농공단지 입주기업 달랑 2곳

농어촌공 116억 들여 조성...장흥군 예산 없어 인수 못해

2391억 쏟아부은 바이오식품산단도 27% 분양에 그쳐

장흥군이 농공단지·산업단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 발전을 내걸고 막대한 돈을 들여 조성했지만 정착 분양은 안되고, 조성 비용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안전 부실하고 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된데다, 분양 전략 부재, 경기 침체 및 지역업체들의 투자 여력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사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농공단지는 지난 2013년 1월 조성됐지만 고작 2개 업체만 입주한 상태로, 전체 분양면적(14만9890.9㎡)의 95.7%(9만3748.2㎡)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장흥군은 조성공사가 완료된 뒤 지난 2015년 입주 업체를 확대하는가 하면, 분양가 인하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농공단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은 116억

2400만원, 국비가 31억7100만 투입됐고 도비 2억2600만원, 군비 2억2700만원을 들었다. 농어촌공사는 80억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입주 업체들의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거나 분양수익을 얻기는 커녕, 조성공사 비용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분양 토지가 넘쳐나면서 준공 5년째 접어들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공단지 인수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5%가 넘는 미분양 토지에 대한 조성원가(76억5600만원)를 농어촌공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인수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장흥군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농어촌공사'가 조달하고, 미분양

장흥 농공·산업단지 분양현황

구분	분양면적 (단위:㎡, %)	분양률
바이오식품산업단지	331,282.1	27.48
농공단지	4,214.3	4.30

토지에 대한 조성원가는 장흥군이 현금으로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최근 농어촌공사와 '미분양 토지에 대해 공동분양의 책임을 지고 분양 50% 초과 달성시 조성원가를 연차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농어촌공사는 양 기관 실무협약서상 농공단지 준공 2년 뒤 조건없이 공공시설물을 인수인계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도 비슷하다.

애초 해당 일반산업단지로 조성 사업이 추진됐다가 다른 지역 산업단지의 차별화를 꾀한다며 뒤늦게 기존 명칭을 바꾸고 바이오·식품 산업 분야로 특화했지만 산단 활

성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1·2단계로 나눠 조성하는데 국비 등 2391억원을 쏟아부었지만 분양 대상 면적(120만5632㎡) 중 27.5%(33만1282.1㎡)만 분양된 상태다.

장흥군도 바이오산단을 위해 1부서 1기업 유치, MOU 체결 후 미실현 기업 접촉,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등 분양 활성화에 나섰지만 침체된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남개발공사가 산단 조성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해 재정 악화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내 분양률이 50%에 못 미치는 산업단지는 7월 말 기준으로 ▲목포 대양산단(31.7%) ▲목포 세라믹산단(23.0%) ▲나주혁신산단(45.3%) ▲담양산단(19.5%)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강진산단(9.7%) 등으로 집계됐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은 지난 8월 양파재배농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경남합천 양파선진지 현장 견학 활동을 실시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양파재배 면적 120ha로 늘린다

재배농 협의회 지원 논의

강진군이 양파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총 75ha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따라 내년 양파 재배면적을 총 120ha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이를 위해 최근 읍·면 양파 작목반 대표자들간 협의회를 열고 노동력 절감 및 재배면적 확대에 필요한 장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

다. 또 양파 재배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경남 합천 선진 재배지를 방문,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생산에 도움이 되는 기계화 재배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아울러 영양제, 양파종자 지원사업 등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기자재 지원사업(육묘상자·파종기·이식기)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군의 가장 중요한 월동작물 중 하나인 양파가 지역 농업인들의 확실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메뚜기 잡고 찰전어 맛보고...이 가을 제대로 즐겨보자

작천 메뚜기·마랑 찰전어·강진만 갈대...강진군 잇단 가을축제

강진군이 즐기고 그윽한 가을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기획,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추석 연휴에 열리는 축제도 적지 않아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메뚜기를 테마로 한 '제 3회 강진 작천 황금들 메뚜기축제'는 어른에게는 향수를, 아이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듬뿍 안겨 줄 축제로 눈길을 끈다.

축제는 대표적인 친환경 유기농 실천 지역인 강진 작천면 주민들이 농약을 쓰지 않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친환경 근초의 대명사 메뚜기를 테마로 잡으면서 시작했다. 메뚜기가 많다는 것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지역임을 의미한다. 축제에 오는 관광객들은 채로 황금들밭에서 메뚜기 잡기를 할 수 있고, 미꾸라지도 잡아볼 수 있다. 고구마와 땅콩을 캐보거나 토끼 먹이주기 체험도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제 9회 강진 마랑 찰전어 축제'는 추석 연휴인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강진 마랑항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는 풍어제·성공기원제, 활어 맨손잡기 체험·300인분 전어비빔밥 만들기를

비롯, 강진만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찰전어로 만든 회를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남해안 최대 생태서식지 강진만을 배경으로 한 축제도 잇따른다.

강진만은 20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갈대숲 뿐 아니라 민물인 탐진강 하류와 강진바다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덕분에 다양한 생물군을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 관광지다.

풍성한 수확의 시기, 식욕이 돋는 제 24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이같은 점을 내세워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진만 갈대숲을 주무대로 열린다.

'제 2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 17일간 음악여행'도 강진만 갈대숲과 오감통 등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17일간 펼쳐진다. 축제는 '우리살에 만남이 필요한 순간'을 주제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진 게 특징이다. 특히 '갈대바람을 따라서 만남', 강진만 생태 탐방로 걷기, 강진만 예쁜사진 콘테스트 등을 마련해 아름다운 강진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군이 다채로운 가을축제를 기획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메뚜기 축제(위)와 갈대축제.

영암군 '농산어촌개발' 6개사업 선정

영암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 공모한 결과, 6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군서면 모정마을 마을종합개발사업(9억8000만원) ▲영암읍 회화정마을 공동문화·복지사업(4억9300만원) ▲삼호읍 백야마을 환경(경관·생태)사업(5억원) ▲금정면 석산마

을 경제(소득)사업(1억6900만원) ▲군서면 동호마을 환경(경관·생태)사업(4억9300만원) 등이다.

영암군은 국비 20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28억원을 확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또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완료지구의 사후관리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진행키로 했다. /영암=전봉현기자 jbh@

장흥군 청소년 우리고장 알기 체험활동

지역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자. 장흥군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독특한 향토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우리고장 알기 체험활동'을 추진한다.

지역 문화유적지에 대한 현장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 28개 초·중·고교 학생들과 지역이동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장흥군은 '우리고장 알기시책 총괄계획'을 수립한 뒤 학교별로 방문 대상지

와 체험활동 일정 등을 조정, 차량 지원 정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체험활동 장소로는 10개 읍·면에 위치한 우드랜드, 정남진 물과과학관, 천문과학관, 신리 매생이 권역센터, 생약초 체험학습장, 백자 도예지, 신북구석기 유적지 등을 꼽았다.

천문과학관과 정남진 전망대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할인 방안과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계획도 세워놓았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히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 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현금2억+부동산과 교환 가능)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나주, ㅅ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조정가)

주인직매 010-3605-5000